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석사학위논문

비행 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선 영

비행 유형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중심으로 -

Study About Personality Traits by Criminal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 focusing on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AI) and
juvenile risk assessment instrument -

2014년 2 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선 영

비행 유형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승 아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10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선 영

김선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조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권해수 (인)

2013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영문초록	iv
제1장 서론	1
제 1절 문제제기	1
제 2절 연구목적	3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비행의 정의 및 연령한계	4
제2절 비행 청소년의 범죄 현황	6
제3절 비행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7
제4절 대인 비행과 대물 비행	10
1. 대인 비행의 실태와 특징	10
2. 대물 비행의 실태와 특징	12
제5절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 선행 연구	14
제6절 연구가설	16
제3장 연구 방법	17
제1절 대상	17
제2절 측정도구	19
1. PAI	19
2. 비행촉발요인조사서	20

제3절 절차	22
제4절 분석 방법	22
제4장 연구 결과	23
제5장 결론 및 논의	30
참고문헌	36
부록	40

표 목 차

표 1. 비행청소년의 재범비율	2
표 2. 법령상 소년의 명칭과 연령 한계	5
표 3.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 범죄 중 점유 비율	6
표 4.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17
표 5. 대인·대물 집단 비행 사례	18
표 6. 대인집단과 대물집단의 PAI 척도 점수	23
표 7. 대인집단과 대물집단의 PAI 하위척도 점수	24
표 8. 대인집단과 대물집단의 비행촉발요인조사서 비교	27

ABSTRACT

Study About Personality Traits by Criminal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 focusing on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AI) and juvenile
risk assessment instrument -

Kim Sun-Young

Advisor : Prof. Jung, Seung-Ah,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re is a lot of existing research on the personality traits of juvenile delinquents through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and the Risk Assessment Instrument (RAI) by classifying them into criminal type. However, they sometimes show conflicting results. Those conflicts are caused from the simple classification of the groups by criminal types and the recklessnes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for convenien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sonality traits with PAI and the risk assessment instrument. For this study, one hundred ninety-seven (197) juvenile delinquents are examined by visiting two police stations located in Gwangju, and they are divided into the interpersonal delinquency group and the property delinquency group based on the Object Relation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The result of analyzing PAI shows that the score of the interpersonal delinquency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on the scale of Aggression (AGG), Dominance (DOM), Aggressive attitude (AGG-A), Verbal aggression (AGG-V), Physical aggression (AGG-P), Mania grandiosity (MAN-G), and Affective instability (BOR-A) than the property delinquency group. Moreover, the score of the property delinquency group indicates significantly higher on the scale of Antisocial behavior (ANT-A) and Persecution (PAR-P) than the interpersonal delinquency group. In regards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isk assessment instrument, the interpersonal delinquency group illustrates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in the functional role of family, delinquency experience, and environmental factor than the object delinquency group. Especially, the interpersonal delinquency group shows a higher level in the factors of family trouble, school adjustment, suspension from school, interpersonal damage, a delinquent item, responsibility, understanding a victim, recognition of result, an impulsive act, and anger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the object delinquency group shows a higher level in the factors of communal life after runaway from home, a goal plan, and alcohol or drug addic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can be proved that interpersonal delinquency group expresses their unfilled desire caused by family trouble in an aggressive way, and their aggressive behavior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juvenile school life, leading to egocentricity and exaggerated self-respect called grandiosity. The object delinquency group has an inclination not to admit their fault, lack of guilty conscience, excessive drinking, and possibility of unrevealed delinquency. Therefore, this study of the personality traits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guidance programs to prevent second juvenile delinquency for the same delinquent type.

key word : criminal types, interpersonal delinquency, property delinquency, PAI, juvenile risk assessment instrument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세계일보, 2013.3.14),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서울신문, 2013.3.4),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과 같이 청소년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2008년 전국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고민 상담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의뢰한 것으로 ‘일탈/비행’이 19.2%(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2009)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 문제는 과거에도 존재해 왔지만, 최근 비행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뉴스 매체를 통해 청소년 범죄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 청소년계로 인계되는 범죄청소년을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성매매 업소에 넘기려고 했던 사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 한 경우도 있다. 청소년 범죄 수치를 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청소년의 인구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청소년 범죄가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들이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선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법무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2011년 범죄백서를 통해 소년 범죄자의 주요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70,045명 중 절도가 33,534명으로 47.9%,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5,571명으로 22.2%, 상해 2,797명으로 4.0%, 폭행 3,376명으로 4.8%, 사기 4,739명으로 6.8%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청소년의 주요 죄명 중 절도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포함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청소년 범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1회에 그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청소년 재범에 관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비행 청소년의 재범 비율(범죄백서, 2011)

연도	구분					
	계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이상
2006	64,225 (100)	44,236 (68.9)	9,193 (14.3)	4,124 (6.4)	2,428 (3.8)	4,244 (6.6)
2007	81,090 (100)	55,543 (68.5)	11,540 (14.2)	5,332 (6.6)	3,090 (3.8)	5,585 (6.9)
2008	114,699 (1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8,086 (7.1)
2009	118,753 (100)	76,490 (64.4)	17,407 (14.7)	8,751 (7.4)	5,497 (4.6)	10,608 (8.9)
2010	82,368 (100)	50,830 (61.7)	12,091 (14.7)	6,546 (7.9)	4,070 (4.0)	8,831 (10.7)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대안교육 센터에서 선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범죄 청소년들은 절도나 폭력,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다양한 비행명을 가지고 대안 교육센터에서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을 받지만, 그들의 심리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교정 프로그램들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여 재범 방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범죄 청소년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2003년부터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 년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PAI 검사와 이수정과 조은경(2005)에 의해 개발된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사용해서 청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성격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PAI 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가 아직까지는 법정에서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범죄 청소년 처분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검사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특성화될 수 있다면 청소년 비행의 재범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절 연구 목적

검사 실시가 용이하고 치료 계획의 수립과 치료의 시행 및 평가가 유리하며(Morey, 1991), 일반 청소년들과 비행청소년들의 성격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윤화, 오상우, 2008)고 알려진 PAI 검사를 이용해 경찰서를 방문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을 연구한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형법상의 비행명을 기준으로 폭력, 절도, 갈취, 기타(유해한각물질흡입, 무면허운전, 성매매 등)집단으로 나누어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폭력 집단의 경우 공격성(AGG)과 치료거부(RXR), 자살관념(SUI)척도가 높게 나타났고 절도 집단의 경우 치료거부(RXR)와 온정성(WRM), 반사회성(ANT)척도, 갈취 집단에서는 반사회적 특징(ANT)과 알코올 문제(ALC) 척도, 기타 집단에서는 온정성(WRM)과 치료거부(RXR)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2010, 고제원, 2013).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집단 구분의 편의를 위해 형법상의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심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비행명을 구분하여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행촉발요인 조사서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비행명 별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장혜련, 2008), 이남희, 이봉건(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기능적 위험, 학교 관련 위험, 비행관련위험, 가출위험, 개인적 위험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비행명칭에 따른 집단 구분을 주로 비행 행동의 표면적 특성들에 맞춘 형법상의 분류체계에 따랐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비행과 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정해체, 정서적 유대 관계 부족,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또래 행동 모방, 특정 심리적 특성의 유전적 요인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2012년 전기 범죄심리사 1급 교육자료) 비행청소년들의 가족 및 주변 환경 구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 연구는 같은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되었어도 비행 행동의 유형에 따라 성격특성도 다를 것이라는 가설 하에 대인비행 집단과 대물비행 집단으로 나누어 PAI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서를 통해 두 집단 간 성격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도 교육을 위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비행의 정의 및 연령한계

비행이란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히 하다’ 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문화 속에 내재된 가치 규범에 의해 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거나 특정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며 두 번째 유형은 독특하거나 특별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유형은 일탈 정도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혐오감 혹은 분노나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청소년 상담백서, 2005). 그러나 같은 문화권이라도 한 가지 행동에 대해 개인 간에 사고의 차이가 있고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장혜련, 2008).

또한 비행은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빈도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으며(장혜련, 2008), Weiner는 단일 비행 행위(single delinquent acts), 다양한 비행을 일련의 기간 중에 일으키는 행위(a single episode of multifil delinquent acts), 간헐적이면서 반복적인 비행 행위(occasional but repetitive delinquent acts), 지속적인 비행 행위(a continually delinquent acts)의 4가지 유형을 행위의 지속성과 빈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연령을 정확히 한계 지어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사춘기가 시작되는 12~13세에서 신체적 성장이 거의 끝나는 23~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고(김희수, 2002),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13~19세까지를 말하며 청소년의 법령상 연령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표2. 법령상 청소년의 명칭과 연령 한계

명칭	취급구분	연령	법령
영아	영아살해·유기	0세	형법
유아	유아대동	18개월 미만	행형법
	의무교육학력	6세~11세	교육법
	곡예,接客 등 금지	14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위험한 업무 사용 금지	16세 미만	형법
	생활보호	18세 미만	생활복지법
	요보호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근로자사용금지	13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소년	유해 위험한 사업 사용제한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근무계약 대리금지	20세 미만	근로기준법
	촉법소년	10~14세	소년법
	범죄소년	14~19세	소년법
범법소년	우범소년	10~19세	소년법
	연소소년	12~15세	소년원법
	연장소년	16~19세	소년원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선서무능력	16세 미만	형사소송법
	유홍중사자 고용금지	18세 미만	풍속영업법
미성년자	성인용영화 관람금지	18세 미만	공연법
	성인유기장 유기금지	18세 미만	공중위생법
	행위무능력	20세 미만	민법
	음주, 흡연, 출입금지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소 출입금지	20세 미만	풍속영업법
청소년	“청소년”의 정의	9~24세	청소년기본법

소년비행은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사 책임을 부과시킨다. 촉법소년은 형벌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이지만 형사 책임은 부담시키지 않으며,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던 촉법 소년이 2008년 이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뀌었다. 이는 소년법 개념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우범소년이란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

벽이 있는 자다.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기존 연구에서 비행을 분류하는 연령은 12세였지만, 본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은 비행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만 10세에서 만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제 2절 비행 청소년의 범죄 현황

비행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비행 동향과 유형, 비행 동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자료는 경찰백서와 범죄백서의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지난 4년(2008~2011)간 전체 범죄 중 비행청소년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 범죄 중 점유 비율(범죄백서, 2012)

	전체 소년범	전년대비 증감율(%)	전체 범죄비율 중 점유 비율(%)
2008	134,992	53.2	5.5
2009	113,022	-16.3	4.5
2010	89,776	-20.6	4.6
2011	83,068	-7.5	4.4

표3 을 통해 살펴본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8년 134,992명에서 2011년 83,06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범죄 비율 중 점유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비율만을 놓고 보면 청소년 비행이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제시한 표1의 재범율을 살펴보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 비행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 소년 범죄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를 보면 전체 66,240명 중 재산범죄가 37,978명(57.3%)이고 폭행, 상해 등을 포함한

폭력 강력범이 22,233명(33.6%), 살인, 강도, 강간 등을 포함한 흉악 강력범이 3,285명(5.0%), 위조범이 1,654명(2.5%)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약 90%가 절도를 포함한 재산범과 폭력과 폭행을 포함한 폭력강력범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범 죄백서 2012자료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동기로 ‘우연으로 인한 비행’이 2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청소년의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익으로 인한 비행’ 17.6%로 피해를 입게 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행동함을 알 수 있다. ‘호기심으로 인한 비행’ 11.4%, ‘부주의로 인한 비행’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비행으로 저지르거나 자신의 행동의 의도와 다르게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익으로 인한 비행’이 2009년 8.9%를 차지했지만, 2010년 20.1%로 대폭 상승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점차 성인 범죄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절 비행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면 정신분석학적 이론, 낙인이론, 긴장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사회통제이론, 하위문화이론 등이 있다.

먼저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 바라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원초아와 초아를 중재하고 통제하는 자아의 기능이 무너졌을 경우 비행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낙인 이론은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범죄자, 전과자, 절도범’ 등의 낙인(labeling)을 하면 그 사람은 자아정체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게 되고 이후 행동을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행행동이 발생한다고 한다. 긴장이론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자신을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하류계층에 소속시킨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생겼을 때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고 한다. 차별적접촉이론은 개인의 성향이나 습성,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계층보다는 주변에서 배운 학습의 내용이 범죄발생에 더 큰 작용을 하여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통제이론은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으로 각자가 사회와 맺는 유대가 취약할 때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하였고 하위문화 이론에 의하면 하류층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문화권에서 사회화되기 때문에 비행행동을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이러한 이론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을 드러내는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만 왜 누군가는 비행 행동이 사람을 향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행 행동이 사물을 향해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Donald Winnicott(1985)는 청소년기에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비행 행동들 간의 차이점을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어머니가 유아의 요구에 공감하지 않거나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 할 때 유아의 경험은 외상적인 경험이 된다. 지나치게 외상적인 환경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계속해서 실패하면 만성적인 비진술감(sense of inauthenticity)을 나타내고,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심한 정신병리가 발달하게 된다. Winnicott는 반사회적 행동 경향을 훔치는 행동과 파괴적 행동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훔치는 행동을 하는 아동은 자신이 찾기를 원했지만 실패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행동하며 훔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한다. 유아시절 어머니가 아이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유아는 자신이 원했던 욕구 충족에 실패해 자신이 채우지 못했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훔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파괴적 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버텨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환경이란 아동이 마음껏 움직이고 흥분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신뢰로운 관계를 말한다. 유아시절 어머니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공감해주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신뢰로운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신을 이해해주고 신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괴적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파괴적 행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지배적인 대인관계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과의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자신이 원했던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 더욱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앞서 설명한 비행 이론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향하는 대인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경우 안전하고 신뢰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행동이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다고 느끼며 공격성이 높고 분노와 적개심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고제원, 2013). 반면 대물 비행은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경우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던 욕구 충족을 위해 훔치는 행동을 하며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공감 능력이 낮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고(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2010), 높은 호기심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비행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부적응 양상과 비행의 관련성을 보면 특히 불안과 우울이 비행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며(Novotny & Burnstein, 1974), 자기 비하감을 비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은 자기 비하감을 가지고 있는데 원만치 않은 가족관계, 부모나 또래로부터의 거부, 학업수행능력 저조와 같은 요인과 관련 있을 것이라 본다(Henggeler, 1989). 비행청소년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공격성, 반사회적 성향, 우울성향, 욕구좌절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가정이나 학교 등 일차적 상호작용 집단에서의 욕구가 좌절된다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김헌수, 김현실, 1997).

비행 행동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병리적 대상관계를 거쳐 왔을 것이라는 Winnicott의 이론 및 비행 청소년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비행행동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전자는 안전한 환경을 찾고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적개심과 분노에 대한 통제 부족으로 인한 학교폭력, 폭행, 상해를 대인비행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후자는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했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훔치는 행동이 나타나며 공감능력이 낮고 책임감이 부족한 정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를 대물비행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행동의 유형을 이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유형들 간의 구분될 수 있는 주된 성격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절 대인 비행과 대물 비행

비행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비행의 종류 또한 그 분류법이 다양하다. 민하영(1992)은 청소년 비행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패싸움, 흥기소지, 강간, 폭행, 공갈협박의 대인비행과, 절도와 방화, 공공기물파괴 등의 대물비행, 약물비행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의 비행전력 및 환경 항목을 살펴보면 폭력, 성범죄, 강도, 살인 등을 대인비행으로 보았고 그 외의 비행을 대물비행으로 보았다. 이렇듯 다양한 비행명 만큼이나 비행명별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nnicott의 이론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다고 느끼고 공격성이 높아 분노와 적개심에 대한 통제가 부족(고제원, 2013)하다고 알려져 있고,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학교 폭력, 폭행, 상해를 대인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람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동시에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공감능력이 낮고 범죄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낮다(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2010)고 알려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를 대물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 연구와는 다른 분류를 통해 나타나는 성격특성을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Winnicott의 대상관계 이론에 기초해 대인비행 집단과 대물비행 집단에서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인비행의 실태와 특징

본 연구에서는 대인비행을 앞서 살펴본 Winnicott의 대상 관계적 관점에 따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만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폭행, 상해를 대인비행으로 포함하였다. 때문에 갈취, 공갈과 같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재산적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 폭력이란 학교라는 장소 안에서 동급생 혹은 선후배 사이에 말다툼 중 신체적인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폭행의 경우 공원, 놀이터, 편의점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지인 혹은 초면인 사람과 사소한 시비로 인해 신체적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포함시켰다. 상해의 경우 친구와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했으며 전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2011년 소년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범은 26.8%로 전체 소년범죄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해(청소년 백서, 2012) 많은 청소년들이 대인 비행을 일으키고 있으며, 폭행과 상해로 경찰서에 입건된 청소년의 수가 2007년 22,713명, 2008년 33,021명, 2009년 27,993명, 2010년 21,854명, 2011년 20,724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폭력은 조직적,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의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성인 폭력 못지않게 청소년들의 폭력 역시 심각하며 폭력을 피하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청소년 대인 비행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폭력에 연루되기 보다는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경우 폭력이 발생한 일차적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 폭력은 학업관련 문제행동이나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을 포함하는 비폭력 비행과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Salt, Lindholm, Goddard & Duncan, 1995), Brier(1995)과 Huizinga, Jakob-Chien(1998)은 폭력 행위자들의 상당수는 학업 중단, 무단 결석, 낮은 학업 수행 능력 등 학교 관련 문제행동을 보인다(문성호, 2002: 재인용)고 하였다. 대인비행 가해자들의 학업 중단률이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평가가 낮은 저임금의 직업에 종사할 확률 역시 높아지게 되며 학교 폭력 가해자의 25%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erry, Kusel & Perry, 1998). 게다가 폭력의 가해자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심한 체벌을 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체벌이 원인이 되어 다시 자녀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한다(박지도, 최현경, 장우성, 조동환, 김정기, 2001). 또한 Farrington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향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부모의 가혹적인 양육태도와 부모의 비행 경력이 청소년의 난폭한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고 밝혀(이수정, 이인희, 2005), 폭력 행위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폭력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지속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학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전학을 가더라도 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따라다니면서 또 다시 아무 이유 없이 맞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이 대인비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인 비행의 가해자는 여러 생활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높은 공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인비행의 피해자와 일치하는 특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폭력의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폭력을 당하는 경

우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경험하는 도발적 피해자가 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폭력을 당하는 경우 계속해서 피해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도발적 피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번갈아 가며 경험하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경계가 모호해 진다. 실제로 폭력 가해 학생들을 살펴보면 과거 폭력의 피해자였던 경우가 종종 있다. 정태연, 김은정과 김인경(2002) 연구에서는 가해-피해 집단이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 보다 더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감정을 갑작스레 드러낼 때가 있으며,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폭력을 일으키기 쉬운 특징(곽현영, 2012)을 지니고 있고, 폭력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을 높여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실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높은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기 방어와 자기 실현을 위해 보복적이고 과잉적인 폭력행동을 하고 현실적인 야망 수준이 좌절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힘이 세고 자신감이 높고 성질이 급하며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힘으로서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이춘재, 곽금주, 2000). 이러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인비행집단을 대상으로 P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격성(AGG)척도와 온정성(WRM)척도가 상승하여 언어적 주장 부족과 분노에 대한 통제력 부족으로 폭력적, 공격적 행동이 자주 나타나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징이(고제원, 2013)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인 비행이란 앞서 설명한 이론과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학교폭력, 폭행, 상해만을 포함하였다.

2. 대물 비행의 실태와 특징

본 연구에서는 대물비행을 앞서 살펴본 Winnicott의 대상관계적 관점에 따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만을 대물비행으로 포함하였다. 때문에 갈취, 공갈과 같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재산적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절도란 편의점의 물건을 훔치는 등 물건의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포함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이란 공원에 놓여 있는 자전거를 가져가는 등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포함하였다. 사기란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물건을 올린 후, 돈을 입금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였다.

2011년 소년범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재산범으로 45.7%에 이르고 그 중 절도범의 비율이 82.6%를 차지하고 있다(청소년 백서, 2012).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만 나타내는 수치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절도 청소년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조미영, 2011). 절도와 사기로 경찰서에 입건된 청소년의 수가 2007년 32,221명, 2008년 37,262명, 2009년 43,290명, 2010년 38,273명, 2011년 35,996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줄어 들고 있지만 대물비행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으로 보아 한번 대물 비행을 저지른 경우 다시 비행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물비행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서로 입건되어 오는 청소년들과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에 의해 발생한 절도가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등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 보다 상점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의 생활반경과는 먼 곳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행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더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같은 대물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특성은 감각추구성향이 클수록(노정구, 김상조, 2002), 호기심과 충동성이 높을수록(김경호, 2008) 죄책감 없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제원, 이규호, 이민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대인관계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낮고 범죄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절도 비행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재산 비행 청소년들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해운, 2010)에서 비행 원인을 찾아본 결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비행을 저지르고 난 후 느끼는 짜릿함이나 쾌감을 위해서, 그냥 재밌어 보여서 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 감각추구 성향, 호기심과 충동성 등이 대물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미숙(2007)에 의하면 절도를 하는 심리적 이유 중 한 가지는 계획적이든 충동적이든 절도에 성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행동이 멍청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대물 비행이란 앞서 설명한 이론과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동시에 물질적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만을 포함하였다.

제 5절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사용한 선행 연구

PAI 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는 경찰서로 인계되어 오는 비행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 청소년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며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PAI 검사는 치료계획의 수립과 치료의 시행 및 평가에 중요한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독해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비행촉발요인조사서는 2005년에 개발된 것으로 사법기관에서 소년 피의자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비행촉발요인조사서가 유용한 감별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이수정, 류경돈, 2009).

현재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는 경찰단계에서 비행을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이수정, 조은경, 2005) 정상 청소년과 소년범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구별됨이 밝혀졌다(고윤화, 오상우, 2008). 또한 비행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감별할 수 있어(양애란, 2005) 비행 감별 도구로서 범죄 유형성 평가와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White(1996)는 다양한 범죄 집단을 대상으로 PAI를 실시한 결과 각 범죄 집단의 구체적인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지적하였고(장혜련, 2008: 재인용), 폭력과 관련된 범죄자의 경우 공격성(AGG)척도와 반사회적(ANT)척도가 가장 상승하고 망상(PAR)척도, 정신분열병(SCZ)척도, 경계선적(BOR)척도의 상승이 확인되었다(Edens, Hart, Johnson, Johnson & L liver, 2000).

양애란(2005)은 형법상의 기준으로 비행 청소년 집단을 폭력, 절도, 갈취, 기타 범법행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 간 PAI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 갈취집단이 절도 집단보다 원한(PAR-R)척도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기타 범법행위 집단이 갈취 집단보다 자극추구(ANT-S)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남희, 이봉건(2009)은 비행청소년을 형법상 기준에 따라 절도, 폭력, 공갈집단으로 나눈 후 재범의 위험성 차이를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절도집단의 경우 가족 기능적 위험 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폭력집단에서는 학교관련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공갈집단의 경우 가출위험요인과 비행관련 위험요인, 개인적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나 비행 유발 요인이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름을 시사한다. 또한 PAI 검사 결과 긍정적인상(PIM),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인지적 불

안(ANX-C), 외상적 스트레스(ARD-T), 활동수준(MAN-A), 피해망상(PAR-P), 자기중심성(ANT-A)척도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각 집단 간 재범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첫 입건된 비행청소년들 중에서 재 입건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PAI 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절도 집단의 경우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비행관련위험요인과 가출요인, PAI 검사의 불안(ANX)과 자살사고(SUI)척도가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폭력집단의 경우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가족구조요인, 학교관련요인, 비행관련 위험요인과 PAI 검사의 지배성(DOM)척도가 재범을 예측 요인임이 밝혀졌다. 공갈집단의 경우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비행관련위험요인과 PAI검사의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특징(ANT)척도가 재범을 예측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가 비행 청소년의 비행 유형에 따라 성격특성이 다르며 재범을 예측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고제원, 이규호, 이민희(2010)는 형법상 기준에 따라 폭력집단, 절도집단, 갈취집단, 기타집단으로 나누어 PAI 검사를 통해 범죄유형별 비행 청소년의 성격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인상(NIM), 긍정적 인상(PIM), 불안(ANX), 불안관련(ARD),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 공격성(AGG), 자살관념(SUI)척도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폭력집단은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척도가 높게 나타나 자신의 미래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절도와 갈취 집단의 경우 온정성(WRM)과 반사회성(ANT)척도가 높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낮고 범죄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다. 기타 집단은 온정성(WRM)과 치료거부(RXR)척도가 높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제원(2013)은 형법상 기준에 따라 폭력, 절도, 갈취, 기타집단으로 나누어 PAI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 공격성(AGG), 약물사용(DRG)척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폭력집단의 경우 공격성(AGG)과 치료거부(RXR) 척도가 높게 나와 분노에 대한 통제 부족으로 공격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나며 절도 집단과 기타집단은 치료거부(RXR)와 온정성(WRM) 척도가 높게 나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다소 떨어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취 집단의 경우 반사회적 특징(ANT)척도와 알코올(ALC)척도가 높아 공감하는 정도가 낮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며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혜련(2008)의 연구에서는 형법상 기준으로 구분한 범죄유형에 따라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각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는 청소년 비행의 경우 총동적이고 일회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격 특성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각 연구에 따라 비행 유형별 성격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의 동기가 즉흥적이고 충동에 의한 것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고제원, 2013)한다. 하지만 집단의 구분을 단순히 형법상의 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형법상 비행명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대신 Winnicott의 대상관계 이론을 기초로 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위해 파괴적 행동을 하며 공격성과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높고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대인비행 집단과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훔치는 행동을 하며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공감능력과 죄책감이 낮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대물비행 집단으로 나누었다.

제6절 연구 가설

1. 대인비행과 대물 비행 집단 간 PAI로 평가된 성격특성이 다를 것이다.
 - 1). 대인 비행 집단이 대물 비행 집단보다 지배성(DOM)척도가 높을 것이다.
 - 2). 대인 비행 집단이 대물 비행 집단보다 공격성(AGG)척도가 높을 것이다.
 - 3). 대인 비행 집단보다 대물 비행 집단이 망상(PAR)척도가 높을 것이다.
 - 4). 대인 비행 집단보다 대물 비행 집단이 반사회적 특징(ANT)척도가 높을 것이다.

2. 대인 비행 집단과 대물 비행 집단 간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특성이 다를 것이다.
 - 1). 대인 비행 집단이 대물 비행 집단보다 가족의 기능적 역할 요인 점수가 높을 것이다.
 - 2). 대인 비행 집단이 대물 비행 집단보다 학교 생활 요인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광주지역 00경찰서와 00경찰서 두 곳을 방문한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촉발요인 조사를 토대로 면담과 PAI-A 성격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인비행은 안전한 환경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대상관계 관점을 토대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공격성이 높고 분노와 적개심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고 알려진 학교폭력, 폭행, 상해를 대인비행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훔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대상관계 관점을 토대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낮다고 알려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를 대물비행으로 포함시켰다. 대인과 대물비행에 동시에 속하거나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갈취, 공갈등 기타비행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여자 비행청소년의 대상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한으로 여자 비행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PAI 검사 타당도 척도들 중 한 척도라도 그 점수가 70점 이상이거나, 부정적인상(NIM)척도와 긍정적인상(PIM)척도의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경우(30점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전체 272명 중 75명을 제외한 총 197명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비행청소년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97	100
	여	0	0
연령	10-11	1	.5
	12-13	39	19.8
	14-15	73	37.0

	16-17	61	30.9
	18-19	23	11.7
비행양상	대인	96	48.7
	대물	101	51.3
재범여부	초범	127	64.5
	재범	70	35.5
초기비행명	대인	34	48.6
	대물	36	51.4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 197명(100%), 평균연령 15.21세로 대인비행 96명(48.7%), 대물비행 101명(51.3%) 나왔고, 초범 127명(64.5%), 재범 70명(35.5%)이었다.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들 중 초기 비행명을 살펴보면 대인비행 34명(48.6%), 대물비행 36명(51.4%)이었다. 비행 유형 이외에 재범 여부가 집단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인비행과 대물 비행 집단 간에 전과 유무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 = .70, p < .791$).

또한 본 연구에서 대인비행과 대물비행 집단으로 분류된 기준과 사례 예시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대인·대물 집단 비행 사례

집단 & 기준	비행명	사례
대인비행: Winnicott의 대상관계 관점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라는 장소 안에서 동급생 혹은 선후배 사이에 말다툼 중 신체적인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폭행	공원, 놀이터, 편의점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지인 혹은 초면인 사람과 사소한 시비로 인해 신체적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상해	신체적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했으며 전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를 말한다.
	절도	편의점의 물건을 훔치는 등 물건의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대물비행: Winnicot의 대상관계적 이론에 따라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점유이탈 물횡령	공원에 놓여 있는 자전거를 가져가는 등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사기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물건을 올린 후, 돈을 입금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 2절 측정 도구

1.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이전까지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대표적인 도구로는 MMPI를 들 수 있다. 하지만 MMPI는 567문항으로 중복문항이 많고 개발 당시 이상 행동의 측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의 성격특성 검사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MMPI 개발 당시와는 임상적 문제나 임상적 문제의 구성 개념의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Morey에 의해 개발된 PAI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검사로 비행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치료계획의 수립과 치료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중요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어 기존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보다 법정 장면이나 교정장면에서 집단을 평가하는데 유리해 사법현장에서 교정 대상자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Morey, 1991). 다른 검사들에 비해 독해력이 낮아도 사용이 가능한 검사로 초등학교 4학년의 독해수준을 지니고 있다면 검사 실시가 가능하다. PAI의 경우 344문항으로 비교적 문항 수가 적고 타당도 척도와 임상척도 뿐만 아니라 치료척도, 대인관계 척도를 포함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타당도 척도의 하위 척도로는 비일관성(ICN)척도, 저빈도(NIF)척도, 부정적 인상(NIM)척도, 긍정적 인상(PIM)척도가 있다. 타당도 척도들은 수검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 태도나 부주의하게 검사에 임했는지를 판단하는 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신의 사소한 결점들을 부정하거나 나쁜 인상을 주려고 시도하거나 꾀병을 부리는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1개의 척도로 이루어진 임상 척도로는 신체적 호소(SOM), 불안(ANX), 불안 관련 장애(ARD), 우울(DEP), 조증(MAN), 망상(PAR),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 반사회적 특징(ANT), 약물문제(DRG)척도가 있다. 각 척도들은 3~4개의 하위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치료 척도는 총 5개로 공격성(AGG)척도, 자살관념(SUI)척도, 스트레스(STR)척도, 비지지(NON)척도, 치료거부(RXR)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척도는 없다.

대인 관계 척도는 2개의 하위 척도로 지배성(DRM)척도와 온정성(WRM)척도로 구성되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려준다.

PAI의 내적 합치도는 성인 .76, 대학생 표본 .77, 임상 표본 .73(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비일관성(ICN)척도와 저빈도(INF)척도를 제외한 20개 척도에서 .77-.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PAI 검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다음 검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타당도 척도가 70점 이상으로 상승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부정적인상(NIM)척도와 긍정적 인상(PIM)척도의 점수 차가 30점 이상으로 나와 임상척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는 경우 검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검사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문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응답한 경우, 타당도 척도가 70점 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부록 1 PAI 성격검사 척도와 척도별 설명 참고)

2. 비행촉발요인조사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2003년부터 청소년계로 의뢰된 소년범들에 대한 자료 및 심리검사들을 통하여 표준화 작업을 마쳤으며(이수정, 조은경, 2004, 곽선영, 2005: 재인용), 사법기관에서 소년 피의자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유용한 감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이수정, 류경돈, 2009).

측정내용을 보면 가족구조, 가족의 기능적 역할, 학교 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및 환경,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가족구조요인에서 편부모 양육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의 기능적 역할요인에서 가정불화, 애착이나 학대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요인에서 학업중단 여부와 비행 친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출경험요인에서 가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비행전력 및 환경 요인에서 이전 비행에 대한 정보와 비행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 위험요인에서 비행행동에 대한 의식이나 음주나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총 4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배점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심하지 않다'는 0점으로 표시하고,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심하다'의 경우 1점으로 표시해 총점은 45점이다.

평가자간 신뢰도 지수는 비행축발요인 조사서 항목 당 .375- 1.000범위였고, 3년 이상의 재범 추적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던 예측타당도는 비교적 피조사 소년들의 재범을 유의하게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류경돈, 2009, 범죄심리사 1급 교육자료, 2012: 재인용). 과거 재범을 예측하는 기준은 비행축발요인조사서 총점 8점이었지만 5년의 추적 연구 결과 총점 12점이 비행을 더 잘 예측 가능케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행축발요인 조사서는 피면담자가 문항에 직접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은 평가자들이 사건 기록과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이수정, 2007).

본 연구에서는 경찰서를 방문한 비행청소년들에게 비행축발요인조사서를 토대로 한 면담을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 약 30분 동안 면담이 이루어졌다. 각 경찰서별로 마련된 면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 또는 기록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개인 신상과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기록된 정보는 청소년의 성격 특성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삭제하였다.

(부록 2 비행축발요인조사서 참조)

제 3절 절차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광주지역 00경찰서와 00경찰서 두 곳의 여성 청소년계를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담당수사관과의 조사를 마친 후, 부모의 동의하에 각 경찰서의 지정된 면담실에서 PAI 성격 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토대로 한 면담을 실시했다. 피면담자와의 약 30~40분에 걸친 면담을 마친 후 PAI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이다. 피면담자가 검사에 응답하는 동안 행동관찰을 하였으며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을 사용하였다.

재범 여부가 대인비행과 대물비행집단의 PAI 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다.

대인비행과 대물비행 집단의 PAI의 각 척도들 및 비행촉발 요인조사서의 각 항목 당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다.

제 4 장 연구 결과

1. 대인집단과 대물집단 간 PAI 척도비교

1) 척도 비교

대인 비행집단과 대물집단 간 PAI 척도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집단 96명, 대물집단 101명의 PAI 척도별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표6. 대인집단과 대물집단의 PAI 척도점수

구분	대인		대물		T값	P값
	96명		101명			
	M	SD	M	SD		
타당도척도						
비일관성(ICN)	48.02	7.25	50.17	8.94	-1.863	.063
저빈도(INF)	51.03	7.98	51.09	9.18	-0.047	.962
부정적인상(NIP)	46.60	7.84	47.84	8.842	-1.036	.301
긍정적인상(PIM)	52.51	9.62	53.36	7.61	-0.693	.488
임상척도						
신체적호소(SOM)	46.35	8.55	46.45	7.849	-0.086	.931
불안(ANX)	45.02	8.51	45.78	7.75	-0.656	.512
불안장애(ARD)	45.95	8.17	45.58	7.13	0.342	.732
우울(DEP)	48.95	8.98	49.87	8.74	-0.722	.470
조증(MAN)	46.55	9.17	44.09	9.06	1.895	.059
망상(PAR)	46.88	9.19	48.07	8.59	-0.941	.347
정신분열병(SCZ)	43.75	8.55	45.81	9.16	-1.630	.104
경계선적특징(BOR)	47.25	9.66	46.32	7.63	0.741	.459
반사회적특징(ANT)	50	9.33	51.01	9.92	-0.741	.459
음주문제(ALC)	49.60	9.59	49.74	8.93	-0.104	.916
약물사용(DRG)	51.56	9.63	52.20	9.35	-0.542	.587
치료고려척도						

공격성(AGG)	52.92	10.85	47.64	9.24	3.684	.000***
자살관념(SUI)	45.80	7.65	47.64	7.29	-1.729	.085
스트레스(STR)	49.77	10.32	50.50	9.18	-0.527	.598
비지지(NON)	49.06	9.76	51.25	10.18	-1.542	.124
치료거부(RXR)	55.28	9.82	53.57	9.80	1.219	.223
대인관계척도						
지배성(DOM)	52.12	10.11	48.89	8.72	2.406	.017*
온정성(WRM)	52.47	10.34	50.50	10.39	1.334	.183

*p<.05, ***p<.001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인집단에서는 치료거부(RXR)척도가 55.28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격성(AGG)척도 52.92점, 온정성(WRM)척도 52.47점, 지배성(DOM)척도 52.12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척도로는 정신분열(SCZ)척도 43.75점, 자살관념(SUI)척도 45.80점, 불안(ANX)척도 45.02점, 불안장애(ARD)척도 45.9점으로 낮게 나왔다.

대물집단에서도 치료거부(RXR)척도가 5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약물사용(DRG)척도 52.20점, 긍정적 인상(PIM)척도 53.54점, 비지지(NON)척도 51.25점으로 높게 나왔다. 가장 낮은 척도로는 조증(MAM)이 44.09점, 불안장애(ARD)척도 45.58점, 불안(ANX)척도 45.78점, 정신분열(SCZ)척도 45.42점으로 낮게 나왔다.

타당도 척도, 임상척도에서 대인비행 집단과 대물비행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고려 척도에서 공격성(AGG)척도와 대인관계척도에서 지배성(DOM)척도가 대인비행집단이 대물비행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큰 척도 순으로 살펴보면 공격성(AGG)척도, 지배성(DOM)척도 순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표6에 제시하였다.

2) PAI 하위 척도의 비교

표7. 대인집단과 대물집단의 PAI 하위척도 점수

구분	대인 96명		대물 101명		T값	P값
	M	SD	M	SD		
	전환(SOM-C)	46.66	8.40	47.87		
신체화(SOM-S)	45.82	8.52	46.49	7.72	-0.580	0.562

건강염려(SOM-H)	48.98	10.02	47.34	8.68	1.231	0.219
인지적불안(ANX-X)	45.52	8.53	46.42	8.64	-0.738	0.460
정서적불안(ANX-A)	45.23	8.54	46.34	8.76	-0.896	0.370
생리적불안(ANX-P)	46.17	8.76	46.52	8.01	-0.290	0.771
강박증(ARD-O)	46.19	8.31	45.01	8.96	0.955	0.340
공포증(ARD-P)	48.11	10.06	48.00	8.57	0.078	0.937
외상적스트레스(ARD-T)	46.25	9.01	47.06	7.22	-0.705	0.481
인지적우울(DEP-C)	48.42	8.09	49.86	8.78	-1.189	0.235
정서적우울(DEP-A)	47.98	10.05	48.69	8.97	-0.518	0.604
생리적우울(DEP-P)	51.08	9.84	50.92	9.44	0.118	0.905
활동수준(MAN-A)	45.91	9.50	44.77	8.82	0.876	0.381
과대성(MAN-G)	49.44	9.64	46.36	10.05	2.194	0.029*
초조성(MAN-I)	46.52	9.94	45.66	9.14	0.630	0.529
과경계(PAR-H)	47.77	10.67	48.14	8.86	-0.270	0.786
피해망상(PAR-P)	46.25	6.95	48.33	7.13	-2.076	0.039*
원한(PAR-R)	48.80	10.83	48.58	10.45	0.143	0.885
정신병적경험(SCZ-P)	44.84	9.14	45.38	9.60	-0.405	0.685
사회적위축(SCZ-S)	46.97	8.69	48.37	9.67	-1.063	0.288
사고장애(SCZ-T)	44.30	8.95	46.40	8.89	-1.653	0.099
정서적불안정(BOR-A)	49.69	10.73	47.00	8.04	1.981	0.049*
정체성문제(BOR-I)	44.72	10.19	45.83	7.31	-0.868	0.386
부정적관계(BOR-N)	45.47	9.46	45.07	8.45	0.313	0.754
자기손상(BOR-S)	51.36	9.58	50.73	8.63	0.486	0.627
반사회적행동(ANT-A)	54.14	10.88	57.95	11.81	-2.347	0.019*
자기중심성(ANT-E)	47.57	9.76	47.03	9.35	0.391	0.695

자극추구(ANT-S)	48.39	10.73	48.10	9.00	0.203	0.838
공격적태도(AGG-A)	52.5	10.97	48.94	9.71	2.413	0.016*
언어적공격(AGG-V)	51.94	10.01	48.58	9.22	2.453	0.015*
신체적공격(AGG-P)	52.38	10.84	47.39	9.70	3.405	0.015*

*p<.05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인비행 집단에서 반사회적행동(ANT-A)척도가 5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공격적 태도(AGG-A)척도 52.50점, 신체적 공격(AGG-P)척도 52.38점 언어적 공격(AGG-V)척도 52.94점으로 높게 나왔다. 가장 낮은 척도는 사고장애(SCZ-T)척도로 44.30점, 정체성문제(BOR-I)척도 44.72점, 정신병적경험(BOR-P)척도 44.84점, 부정적 관계(BOR-N)척도 45.47점으로 나왔다.

대물비행 집단에서 반사회적 행동(ANT-A)척도가 57.9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자기손상(BOR-S)척도 50.73점, 생리적 우울(DEP-P)척도 50.92점, 인지적 우울(DEP-C)척도 49.86점으로 높게 나왔다. 가장 낮은 척도는 활동수준(MAN-A)척도 44.77점, 부정적 관계(BOR-N)척도 45.07점, 강박증(ARD-O)척도 45.01점, 정신병적 경험(SCZ-P)척도 45.38점으로 나왔다.

대인비행 집단과 대물비행 집단의 PAI 하위척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과대성(MAN-G)척도, 정서적 불안(BOR-A)척도, 공격적 태도(AGG-A)척도, 언어적 공격(AGG-V)척도, 신체적 공격(AGG-P)척도에서 대인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피해망상(PAR-P)척도, 반사회적 행동(ANT-A)척도에서 대물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상위 척도인 공격성(AGG)척도의 상승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척도인 공격적 태도(AGG-A)척도, 언어적 공격(AGG-V)척도, 신체적 공격(AGG-P) 척도 중 하나만 극단적으로 상승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2. 대인비행 집단과 대물비행 집단 간 비행촉발요인조사서 비교

대인 비행집단과 대물집단 간 비행촉발요인조사서에 포함된 각 항목 점수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집단 96명, 대물집단 101명의 비행촉발요인조사서 각 항목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1) 비행촉발요인조사서 요인 비교

표8. 대인집단과 대물집단의 비행촉발요인조사서 비교

구분	대인		대물		T값	P값
	96명		101명			
	M	SD	M	SD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총점	10.06	6.15	8.29	5.61	2.117	.036*
가족구조요인						
가정결손여부	0.28	0.47	0.29	0.45	-.089	.929
부모이혼, 별거	0.04	0.20	0.02	0.14	.890	.375
독거	0.22	0.42	0.26	0.44	-.617	.538
생계 책임 보호자	0.01	0.10	0.01	0.09	.036	.971
	0	0	0	0	0	0
가족의 기능적 역할요인						
가정불화·냉담	0.92	1.40	0.56	0.83	.138	.032*
가족 간 폭력	0.33	0.47	0.18	0.39	2.346	.020*
심리적학대	0.05	0.22	0.07	0.27	-.764	.446
애착 및 관심	0.04	0.20	0.02	0.17	.465	.642
가족 중 전과자	0.27	0.44	0.19	0.40	1.202	.229
	0.09	0.29	0.05	0.23	.906	.366
학교생활요인						
학력	2.12	1.52	1.86	1.57	.259	.233
장기·무단결석	0.27	0.44	0.31	0.46	-.705	.481
학교생활적응	0.31	0.46	0.37	0.48	-.846	.399
정학경험	0.30	0.46	0.12	0.33	3.000	.003**
상급학교진학	0.52	0.50	0.36	0.48	2.196	.029*
교우관계	0.13	0.34	0.13	0.34	-.065	.948
	0.57	0.49	0.52	0.50	.676	.500
가출경험요인						
가출경험	0.84	1.14	1.07	1.04	.700	.148
	0.13	0.34	0.19	0.40	-1.179	.242

가출 친구	0.5	0.50	0.61 3	0.48	-1.610	.109
가출시 집단생활	0.13	0.34	0.24	0.43	-2.015	.045*
비행전력 및 환경요인	2.02	1.60	1.41	1.36	.075	.005**
이전 비행 경력	0.36	0.48	0.4	0.49	-.451	.653
유죄판결	0.14	0.35	0.21	0.41	-1.311	.191
소년원경력	0.02	0.14	0.01	0.14	.051	.959
보호관찰	0.04	0.20	0.02	0.14	.890	.375
대인피해전력	0.26	0.44	0.08	0.28	3.215	.002**
본 비행내용	0.87	0.33	0.03	0.19	21.156	.000**
목표 계획여부	0.17	0.38	0.30	0.46	-2.146	.034*
비행수법	0.08	0.27	0.16	0.37	-1.797	.072
점진적 심각성	0.13	0.34	0.20	0.94	-.693	.489
최초 비행연령	0.00	0.00	0.01	0.09	-.975	.331
개인적 위험요인	3.98	2.86	3.21	2.66	.512	.052
술	0.15	0.36	0.17	0.37	-.228	.820
본드나 가스	0.05	0.22	0.04	0.19	.417	.677
술이나 약물 중독	0.26	0.44	0.14	0.34	2.114	.035*
인터넷 게임 중독	0.11	0.32	0.18	0.39	-1.443	.153
성경험 문제	0.04	0.20	0.03	0.19	.073	.942
성매매	0.00	0.00	0.01	0.09	-.975	.331
책임의식	0.31	0.46	0.17	0.38	2.200	.028*
피해자 입장 이해	0.46	0.50	0.22	0.42	3.642	.000***
결과 인식	0.51	0.50	0.36	0.48	2.047	.042*
준법의식	0.14	0.35	0.17	0.38	-.615	.542
목표에 대한 노력	0.19	0.40	0.29	0.45	-1.617	.109
인지능력 손상	0.00	0.00	0.01	0.09	-.975	.331
정서상태	0.06	0.24	0.06	0.25	-.191	.848
대처능력	0.55	0.49	0.52	0.50	.383	.702
충동적 행위	0.55	0.49	0.38	0.48	2.354	.020*

분노경험	0.46	0.50	0.29	0.45	2.508	.013*
상당 태도	0.06	0.24	0.07	0.27	-.454	.650

*p<.05, **p<.01, ***p<.001

대인비행집단과 대물비행 집단의 비행촉발조사서 요인 51개 영역을 비교한 결과, 대인비행 집단이 비행촉발요인조사서 총점, 가족의 기능적 역할, 비행전력 및 환경, 가정 불화, 학교 생활적응, 정학경험, 대인비행 전력, 본 비행내용, 책임의식, 피해자 입장 이해, 결과인식, 충동적 행위, 분노경험요인에서 대물비행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물비행 집단은 가출시 집단생활, 목표 계획여부, 술이나 약물 중독에서 대물비행 집단이 대인비행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표8에 제시하였다.

제 5장 결론 및 논의

선행 연구에서 비행유형별로 비행 청소년의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선도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폭력, 절도, 갈취, 기타집단 간 성격특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일치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은 청소년 비행의 경우 총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집단 구분이 형법상에 분류된 비행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비행 유형을 더욱 동질적인 유형(대인-대물)으로 분류하여 그 비행명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 성격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선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에 입건된 비행 청소년을 형법상 기준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 하는 대신 Winnicott의 대상 관계 이론과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순수하게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인비행 집단과 사람과의 접촉 없이 사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물비행 집단으로 나누어 총 197명을 대상으로 PAI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실시하여 집단별 PAI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평균차이를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척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인비행청소년과 대물비행청소년의 PAI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 대인비행 집단의 공격성(AGG)척도, 지배성(DOM)척도, 과대성(MAN-G)척도, 정서적불안(BOR-A)척도 점수가 대물비행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대물집단의 경우 반사회적행동(ANT-A)척도, 피해망상(PAR-P)척도 점수가 대인비행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대인비행에 속하는 폭력 집단이 공격성이 높고(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2010) 정서적 불안이 높다(이남희, 이봉건, 2009)는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물비행 집단에서 지배성(DOM), 과대성(MAN-G)척도 역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대인비행 청소년들이 대물 비행 집단보다 더 지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과장된 자존감을 지니

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 대인비행 집단의 온정성(WRM)척도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대인비행 집단의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욕구가 강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물 비행에 속하는 절도 집단이 반사회성 척도의 반사회적 행동(ANT-A)척도의 점수가 폭행집단, 갈취집단, 기타집단에 비해 높다(고제원, 2013)는 연구결과와 절도 집단의 피해 망상척도가 폭력집단, 공갈집단에 비해 높게 나왔던 이남희, 이봉건(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물비행 집단이 대인비행 집단에 비해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대인비행 집단이 대물비행 집단보다 과거에 비행경력이 더 많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물비행 집단에서 망상(PAR)척도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망상의 하위 척도인 피해망상(PAR-P)척도만 높게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대물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대인비행 청소년들보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경계심이 높다는 것은, 이들이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인비행보다 대물비행을 더 습관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ANT-A)척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것은 대인비행 집단보다 대물비행 집단의 경우 경찰서로 입건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비행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대물비행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대인비행집단과 대물비행집단의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비교한 결과 대인비행 집단에서 비행촉발요인조사서 총점, 가족의 기능적 역할요인, 비행전력 및 환경요인 점수가 대물비행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대인비행 집단이 가정불화, 학교생활 적응, 정학경험, 대인피해전력, 본 비행 내용, 책임의식, 피해자 입장이해, 결과인식, 충동적 행위, 분노경험에서 대물비행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대물비행 집단은 가출시 집단생활, 목표계획 여부, 술이나 약물 중독에서 대인비행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형법상 기준으로 비행 집단을 구분하여 비행촉발요인조사서에서 비행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양애란(2005), 장혜련(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로, 선행연구의 형법상의 집단 분류와 본 연구에서의 동질적인 비행 분류(대인-대물)로 인한 집단 분류 방식에서의 차이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비행 촉발요인 조사서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인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대물비행 집단보다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

지 못해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부모의 이혼, 별거 여부 등의 가족 구조보다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분위기가 대인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Farrington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향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부모의 가혹적인 양육태도와 부모의 비행 경력이 청소년의 난폭한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있다(이수정, 이인희, 2005 재인용). 학교 폭력과 같은 대인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학업중단과 낮은 학업 수행 능력 등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나타나기 때문에(문성호, 2002)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의 학교관련 요인이 대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대인비행 집단과 대물비행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요인을 보면 학교생활 적응문제, 정학 경험이 대인비행 집단에서 높게 나와 학급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내 처벌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비행 집단의 비행전력 및 환경요인 항목을 살펴보면 ‘대인피해전력’과 ‘본 비행내용’에 각 1점씩 상승하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인비행 집단이 대물비행 집단에 비해 계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비행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대인비행 집단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비행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해자에 대한 입장 고려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대인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이 오해해 말다툼 끝에 폭력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비행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술이나 약물에 대한 중독과 관련된 요인이 대물비행 집단보다 대인비행 집단에서 높게 나와 음주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술을 더 자주, 많이 마시며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대물비행 집단의 경우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상위 요인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특성들이 하위요인의 분석을 통해 드러났는데, 대물비행 집단은 인생 목표에 대한 노력이나 현실성과 관련된 요인이 대인비행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생활하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 고려하지 않고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의하진 않지만 대인비행 집단에 비해 가출 경험이 더 많으며, 집단으로 생활하는 비율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인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일차적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가족과의 무관심,

대화부족, 불화 등의 문제가 청소년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 불만을 공격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피해를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관계 욕구 충족을 더욱 어렵게 해 대인 비행이 발생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가정에서 시작된 욕구 불충족으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은 학교 생활로 이어져 학급 친구들을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 학교에서 징계나 처벌이 내려지거나 심할 경우 정학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물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문제에 의한 공격성 표현으로 비행행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 때문으로 보인다. 대물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대인비행 청소년들보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경계심이 높다는 것은, 이들이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대인비행보다 대물비행을 더 습관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이전의 비행이 대인비행 집단에 비해 대물비행 집단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물비행 집단은 타인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경계하는 경향과 관련되어 또래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비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물비행 집단을 교육할 때는 특히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비행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PAI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이용한 비행청소년의 범죄 유형별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범죄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형사법상의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편리성에 의해서만 구분되어져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Winnicott의 대상관계 이론과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 공통적인 특성과 연구자에 의해 정의된 조작적 정의에 의해 비행명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동질적인 비행 유형으로 나누어 대인비행 집단과 대물비행 집단의 PAI검사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살펴본 결과, 대인비행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에

대한 높은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가족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이루지 못하는 욕구 불만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러한 행동이 학교 생활로 이어져 교내처벌, 동급생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대물비행 집단의 경우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행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고 드러나지 않은 비행이 대인 비행집단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밝혀져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대인비행 집단에 비해 더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개입의 측면에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대인 비행 집단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을 느끼는 원인 파악에 초점을 맞춘 상담을 진행하며 공격성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공감훈련을 포함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대인비행 집단의 특성에 더 적절하며 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의 원인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 점검을 통해 필요시 가족 상담을 실시해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속감을 느낀다면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가 형성된다면 동급생들과의 관계로 확장시켜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정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대물비행 집단의 경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부족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한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비행행동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킨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물 비행집단은 드러나지 않은 비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행행동이 반복 될수록 비행 수법이 정교화 되고 치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물비행 집단에게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자신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맞는 직업 적성을 찾아줘 미래를 위해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자 비행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오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수가 적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폭행, 절도, 갈취, 직업안전법위반, 성매매, 유해환각물질흡입 등 다양한 비행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집단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남자 비행 청소년만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자 비행 청소년들의 사례수가 많이 확보되고, 본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면 남자 청소년들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김선경(201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집단에 비해 가정결손집단, 학업중단집단, 결손 및 학업중단 집단의 비행 성향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결손과 학업중단의 환경적 특성을 미처 통제하지 못하였다. 김선경(2013)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환경적 특성에 따른 대인·대물비행 집단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환경 차이에 의한 집단별 성격 특성을 추가적으로 비교하여 탐구하거나 환경에 의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특징이 동일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2012 전기 범죄심리사 1급 교육(2012).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심리.
- 법무연수원(2011). 범죄백서 2011.
- 법무연수원(2012). 범죄백서 2012.
- 사이버경찰청(2012). 경찰백서 2012.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2008.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백서 201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5). 청소년 상담백서 2005.
- 고윤화, 오상우(2008). 소년범과 정상 청소년의 감별을 위한 PAI-A 프로파일 유용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80-581.
- 고제원, 이규호, 이민희(2010). 비행 청소년의 범죄 유형별 PAI 프로파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9, 157-176.
- 고제원(2013). PAI 프로파일상에 나타난 소년범죄자의 특성,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50, 329-349.
- 김경호(2008). 남자 비행청소년의 절도와 남성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0(3), 167-182.
- 김민철(2002). 청소년비행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김병민(2011). 절도 소년범들의 재범 예측 요인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선경(2013). 가정 결손 및 학업 중단 비행청소년의 성격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2001).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김해운(2010). 재산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비행원인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현수, 김현실(1997). 한국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57-69
- 김희수(2002).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우석

- 대학교.
- 곽선영(2005). 비행청소년의 재범위험성차이에 관한 연구 : 비행촉발요인조사와 PAI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곽현영(2012). 학교폭력 가해-피해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 공격성 및 학교적응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노정구, 김상조(2002). 청소년의 상점절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사이버 비즈니스**, 1, 95-106.
- 문성호(2002). 청소년폭력과 비폭력 비행간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9(3), 145-162.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 - 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지도, 최현경, 장우성, 조동환, 김정기(2001). 불량행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병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40(4), 640-655.
- 양애란(2005). 경찰수사단계에서 범법 청소년의 비행 촉발요인과 범죄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 이남희, 이봉건(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에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27-140 .
- 이수정, 조은경(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조사 도구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27-43.
- 이수정, 이인희(2005). 청소년의 비행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해. **경기대학교 학생생활 종합센터: 학생생활연구**, 20, 39-81.
- 이수정(2007).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소년 다이버전을 위한 비행성평가절차의 재범예측력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47-57
- 이수정, 류경돈(2009).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심리측정학적 특성: 평가자간 신뢰도 및 예측타당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485-505.
- 이춘재, 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장혜련(2008). PAI에 나타난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정태연, 김은정, 김인경(2000). 공격성 지각에 대한 대인관계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 지: 발달, 12(2), 79-98.
- 조미영(2011). 절도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부-자녀 간 애정유대가 또래동조성과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 조한중(2013.3.14). 초등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서울신문**, 12면 4단
- 최미숙(2007).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실태와 원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야대학교.
- 한현목(2013.3.4). “왜 부모 무시해” … 친척들에 흥기 휘두른 10대, **세계일보**, 8면 4단
- Brier, N. (1995). Predicting anti-social behavior youngsters displaying poor academic achievement: A review of risk factor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6, 271-276.
- Edens, J.f., Hart, S. D., Johnson, D. W., Johnson, J. K., & LLiver, M. E.(2002). Use of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to assess psychopathy in offender population. *Psychologic Assessment*, 12, 1332-139
- Henggeler, S. W. (1989). *Delinquency in adolescence*. Newburry Park: Sage.
- Huizinga, D. & Jakob-Chien, C. (1998). The contemporaneous Co-Occurrence of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ing and other problem behavior. In R. Loeber & D. P. Farrington(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 47-67. Thousano-Oaks, CA: SAGE Publication.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Florida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Novotny, E. S. & Burnstein, M. (1974). Public school adjustment of delinquent boys fter release from a juvenile corrective institu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49-60.
- Perry, D. G., Kusel, S, J. & Peery, L, C.,(1998). Victim of Peer A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Salt, C. J., Lindholm, B. W., Goddard, H. W., & Duncan, S.(1995). Predictive variable of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t males. *Youth & Society*, 26(3), 377-399.
- White, L. j.(1996). Review of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AI): A new psychological test for clinical and forensic assessment. *Australian*

Psychologist, 31, 38-39.

Winnicott, D. W. (1985). *Deprivation and Delinquency*. London : Routledge.

<부록1> PAI 성격검사 척도와 척도별 설명

척 도		문항수	척도 설명
타당성 척 도	비일관성(ICN)	10	수감자가 얼마나 일관성있는 반응을 했는지를 나타낸다.
	저빈도(INF)	8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부정적 인상(NIM)	9	일부러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긍정적 인상(PIM)	9	바람직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임상척도	신체적 호소(SOM)	24	전환(SOM-C), 신체화(SOM-S), 건강염려(SOM-H)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기능 및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측정한다.
	불안(ANX)	24	인지적(ANX-C), 정서적(ANX-A), 생리적(ANX-P) 불안
	불안관련장애(ARD)	24	강박증(ARD-O), 공포증(ARD-P), 외상적스트레스(ARD-T)
	우울(DEP)	24	인지적(DEP-C), 정서적(DEP-A), 생리적(DEP-P) 우울
	조증(MAN)	24	활동수준(MAN-A), 과대성(MAN-G), 초조성(MAN-I), 고양된 기분, 과대성, 활동수준 증가, 초조성, 참을성부족 등과 같은 특징 포함
	망상(PAR)	24	과경계(PAR-H), 피해망상(PAR-P), 원한(PAR-R) 주변환경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 원한을 품는 경향,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 등과 관련
	정신분열병(SCZ)	24	정신병적 위험(SCZ-P), 사회적위축(SCZ-S), 사고장애(SCZ-T). 기이한 신념과 지각, 사회적 휴율의 저하, 사회적 무쾌감, 주의력 결핍 등의 내용을 포함.
	경계선적 특징(BOR)	24	정서적불안정(BOR-A), 정체성문제(BOR-I), 부정적관계(BOR-N), 자기손상(BOR-S). 감정통제 어려움, 강렬하고 투쟁적인 대인관계, 정체감 혼란, 자기파괴적인 충동적 행동 등을 포함
	반사회적 특징(ANT)	24	반사회적행동(ANT-A), 자기중심성(ANT-E), 자극추구(ANT-S).
	음주문제(ALC)	12	알콜 사용, 남용, 의존과 관련된 행동과 결과를 평가한다.
	약물사용(DRG)	12	약물사용, 남용, 의존과 관련된 행동과 결과를 평가한다.
	치료고려 척 도	공격성(AGG)	18
자살관념(SUI)		12	죽음이나 자살과 관련된 사고를 평가한다.
스트레스(STR)		8	현재 혹은 최근에 경험한 생활 스트레스를 평가한다.
비지지(NON)		8	친구 및 가족 등과 상호작용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
치료거부(RXR)		8	심리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측정한다.
대인관계 척 도	지배성(DOM)	12	대인관계에서 독립성, 주장성, 통제성을 측정한다.
	온정성(WRM)	12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공감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부록 2> 비행촉발요인조사서

1. 가족의 구조 ()점		5. 비행전력 및 환경 ()점 총전과 수() 회	
1) 가정결손여부: 친부 혹은 친모사망	아니다(0) 그렇다(1)	1) 본 비행 전 지구대 혹은 경찰서 입건	없음(0) 있음(1)
부모 이혼, 별거 혹은 가출	아니다(0) 그렇다(1)	2) 유죄 판결 전력	없음(0) 있음(1)
독거	아니다(0) 그렇다(1)	3)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	없음(0) 있음(1)
2)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	있음(0) 없음(1)	4) 보호관찰 위반경력	없음(0) 있음(1)
2. 가족의 기능적 역할 () 점		5) 대인피해전력(본범제외) 폭력, 성범죄, 강도, 살인 등	없음(0) 있음(1)
1) 가정불화·냉담	심하지 않음(0) 심함(1)	6) 본 비행내용	대물피해(0) 대인피해(1)
2) 가족 간 신체 및 언어적 폭력	심하지 않음(0) 심함(1)	7) 본 범 사건모의 혹은 계획여부	없음(0) 있음(1)
3) 가족 간 심리적 학대	정상(0) 비정상(1)	8) 비행수법(장물처리 등)	모름(0) 앎(1)
4) 보호자의 애착 및 관심정도	정상(0) 비정상(1)	9) 비행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없음(0) 있음(1)
5) 가족 구성원 중 전과자	없음(0) 있음(1)	10) 최초 비행연령이 만 10세	이상(0) 이하(1)
3. 학교생활 () 점		6. 개인적 위험요인 () 점	
1) 학력	중졸이상 혹은 재학 중(0) 중졸이하 혹은 고퇴(1)	1) 술을	마시지 않음(0) 자주 마심(1)
2) 장기결석 혹은 잦은 무단결석	없음(0) 있음(1)	2) 본드나 가스 등을 해본 적이	없음(0) 있음(1)
3) 학교생활적응에 문제 (왕따 피해 혹은 가해경험)	없음(0) 있음(1)	3) 술이나 약물에 대한 중독, 남용 여부	없음(0) 있음(1)
4) 학교에서의 경고나 징학경험	없음(0) 있음(1)	4) 인터넷 게임 혹은 음란사이트 중독여부	없음(0) 있음(1)
5) 상급학교 진학예정	있음(0) 없음(1)	5) 성경험으로 인한 문제	없음(0) 있음(1)
6) 교우관계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 는 친구	없음(0) 있음(1)	6) 성매매 경험	없음(0) 있음(1)
4. 가출경험 () 점		7) 본범에 대한 책임의식	있음(0) 없음(1)
1) 가출경험	상습적이지 않음(0) 상습적(1)	8) 피해자의 입장이해	잘 이해(0) 이해 못함(1)
2)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	없음(0) 있음(1)	9)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	인식함(0) 인식 못함(1)
3) 가출하여 집단으로 생활해 본 경험	없음(0) 있음(1)	10) 준범의식	있음(0) 없음(1)
		11) 인생목표의 현실성 및 노력정도	열심(0) 노력 없음(1)
		12) 인지능력손상	없음(0) 있음(1)

	13) 정서상태	안정(0) 불안정(1)
	14)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	있음(0) 없음(1)
	15) 충동적 행위 탐닉	없음(0) 있음(1)
	16) 분노경험	잘 조절(0) 폭발(1)
	17) 상담 및 조사에 임하는 태도	우량(0) 불량(1)